

보도시점 (지 면) 9. 11.(월) 조간
(인터넷) 9. 10.(일) 12:00

지역중소기업 정책, 이제는 지역이 주도한다

-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지역 체감형 정책실행 방안 논의
- 뿌려주기식 분절적·단편적 지원에서 성과지향적 사업(프로젝트) 중심 집중지원으로 변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일 세종테크노파크 6층 대강당에서 이영 장관 주재로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첨병 기관인 테크노파크(19개)와 창조경제혁신센터(19개) 원장 및 센터장들과 지역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여파에 지역소멸, 3고(高) 복합위기까지 겹쳐, 고군분투 중인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다수 실·국장들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해 지역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됐으며, 1부 순서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양 기관의 중소기업 육성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며,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범사례를 소개하면,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내 11개 혁신기관과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성장 중인 ‘에이비비(ABB)인공지능(A)·빅데이터(B)·블록체인(B)’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26년까지 50개사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원루프(기술개발 → 사업화 → 마케팅 → 투자 및 상장(IPO))’ 지원 중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역 37개 기관과 한 조(원팀)를 이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협업중이다. 발굴된 기업에게는 공간, 자금, 투자연계, 기술지원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세계 3대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행사라 불리는 ‘세계가전제품박람회(CES)2023’, ‘에디슨 어워드’, ‘매스켈린지’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한 기업 총 27개사가 선정된 것도 협업의 결과다.

지역 정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는 2부 순서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이며, 국정과제*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정책이 주요 핵심 과제”라고 언급한 후,

* (국정과제 117번)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119번)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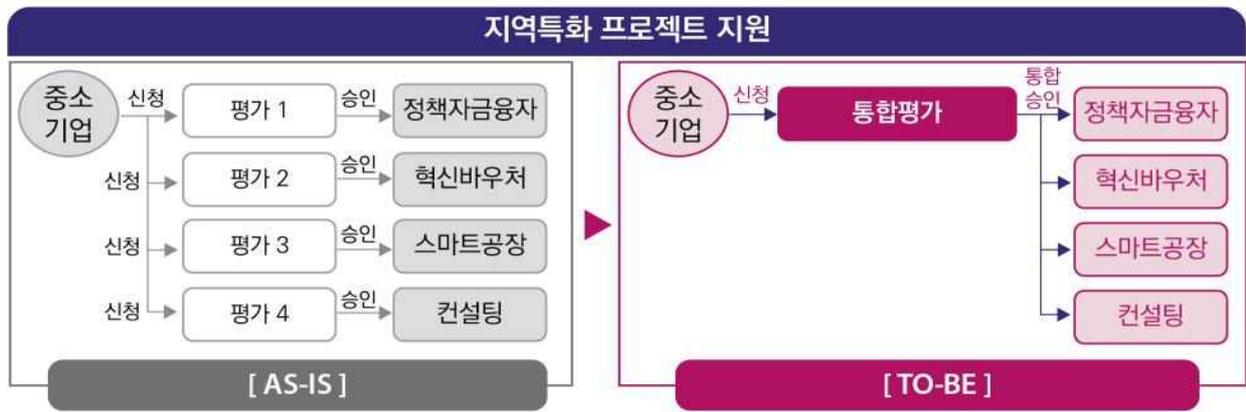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23.2),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23.4),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23.5) 등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지역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소기업 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소회를 밝혔다.

지금의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지역사업으로는 지역의 혁신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의 체감도도 낮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방정부와 지역혁신 연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특색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프로젝트)을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사업(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난 2월 개편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해 특화 분야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엮어내 성과지향적 목표를 만드는 것으로, 그동안 테크노파크,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지역혁신지원기관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던 방식을 지역 특화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면 지역의 집행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화학적 클러스터링’이 기대된다.



2부 순서 말미엔 장관과 참석자들이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지역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 * ① 지역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② 지역 체감형 중소기업 정책 방안, ③ 지역 혁신기관 간 협업 강화 등

해당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과 ‘핵심미션’을 공유하고 공동 추진 하면서 ‘하나로 강력한 원팀’ 체제를 구축해 왔다”고 강조한 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의 두 축인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쌍두마차가 되어 지역중소기업이 만드는 ‘살맛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발표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내용을 구체화해 9~10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특화 사업(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받아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실 지역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화 (044-204-7570)
		담당자	서기관	황선희 (044-204-7571)
		담당자	사무관	유기석 (044-204-7472)

□ 연석회의 개요

- (일시/장소) 9월 8일(금), 14:00~17:40 / 세종테크노파크 대강당(6F)
- (참석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차관, 세종시장, 본부 실·국장,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9개 TP 원장(+단장) 및 19개 혁신센터장(+본부장) 등 약 150명
- 주요내용
 - (1부) TP·혁신센터 Best-Practice* 발표
 - * 각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적 특색 있는 정책과 성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 소개, 지역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등
 - (2부)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대화, ②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③지역창업 활성화 방안, ④TP/혁신센터 성과·비전 발표

□ 주요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부	14:00~14:05	5' • 인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간부진 소개	중소기업정책실장
	14:05~14:45	40' • (발표1) 혁신센터 Best-Practice 사례 발표(4개)	19개 혁신센터 중 선정
	14:45~15:05	20' • 나눔 / 총평	창업벤처혁신실장
	15:05~15:45	40' • (발표2) 테크노파크 Best-Practice 사례 발표 (4개)	19개 TP 중 선정
	15:45~16:05	20' • 나눔 / 총평	중소기업정책실장
	16:05~16:20	15' • Break Time (브랜드 공모작 선호조사 : 스티커 부착)	
	16:05~16:20	15' • 사전환담	장관, 세종시장 등
2부	16:20~16:25	5' • 기념촬영	
	16:25~16:35	10' • 인사말씀	장관, 세종시장
	16:35~16:43	8' • (발표1)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지역혁신정책과장
	16:43~16:50	7' • (발표2) 지역창업 활성화 방안(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설명	창업생태계과장
	16:50~17:10	20' • (발표3) TP·혁신센터의 주요 성과 및 비전 발표	진흥회장/협의회장
	17:10~17:40	30'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대화	장관